**UBS Investment Banking Division (2/21)**

면접보고 내려가는 길에 쓰는 따끈따끈한 후기입니당.  
공고보고 영문 레쥬메를 보냈고 월요일에 서울Psychometric Test를 치고 왔습니다. 다른 후기에 나온 테스트와 동일한 유형이었고  
수요일에 다행히도 패스했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 낮에 한 시간가량 기업 금융부 과장님 차장님 이사님과 면접을 봤습니다  
  
회계 관련질문반 fit반 이었던거 같구요,

다들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영어로 자기소개 해 보라고 하셨고  
전체적으로 영어 30 한국어70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 
Why me? Why IB? 질문에 대한 답은 영어와 한국어로 둘 다 준비 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 제가 컨설팅 인턴경험이 있어서 그걸 보시고 금융권에 왜 들어오고 싶냐는 질문을 세분 모두 하셨구요 한국말로 질문하실땐 어느정도 대답했는데 영어 질문에 막혀서 탈탈 털렸습니다ㅠㅠ

* + - 장기적인 goal이 뭔지
    - 기업에서 왜 직접 M&A진행을 안하고 우리한테 맡기는거 같냐
    - 다른 지원자에 비해 너의 특출난점을 어필해봐라
    - Ib가 뭐하는 부서인지 아니?
    - 니가 인턴으로 오면 어떤 일을 할지아니?
    - 나같은 IB종사자가 어떻게 먹고살면 좋겠냐?
* EBITDA의 개념.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가?
* 배수비교법
* DCF하는 법. FCF WACC TV개념들 말하면서 설명 드리니까 각각 구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.
* DCF할 때 예측기간을 얼마로 잡는게 바람직한건지?
* PER와 EV/EBITDA